

거문도의 근대적 어업 기술 도입에 따른 지역 변화*

이철우** · 박민정***

The Modernization of Fishery Technology and Local Changes in GeomunDo Island, Korea*

Lee, Chulwoo** · Park, Minjoung***

요약: 본 논문은 소규모 변경도서인 거문도를 대상으로 새로운 어업기술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변화를 연구하였다. 새로운 제도와 기술의 도입에 따른 지역 내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급적인 어업은 상업적 어업으로 변화되고, 늘어난 어획물 처리를 위한 제도와 설비의 확충이 나타난다. 즉 어시장의 개설, 수산 가공업의 발달 등 수산업분야의 성장은 지역 내 산업 구조 변화로 드러난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변화를 새로운 문화 요소의 이식과정과 이식된 문화요소가 지역 내 원질 문화와 결합하는 토착화 과정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새로운 문화 요소가 이식될 때 수용과 토착화 과정은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각 문화 요소별로 상이한 속도와 양상을 나타내며, 집단 간의 반응 양상도 선별적으로 드러난다.

주요어: 거문도, 어업 기술, 지역변화, 상업적 어업, 토착화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ocal changes in which the introduction of new fishery technology in small remote island, Geomun-Do, had result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With the help of introduction of new fishery technology, local fishery industry transformed self-sufficient one into commercial one. This led to increase in the productivity of fishery industry and, subsequently, the emergence of new social system and processing facilities. The growth of fisheries, which led the opening of fishing market and the development of processing industry, made it change local industrial structure. This paper focused particularly on local cultural transformation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new fishery technology. In conclusion, the paper argues that the pace of cultural transformation can be selectively appeared by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locality and social group, when new cultural elements are introduced and adapted to a certain locality.

Key Words: Geomun-Do, fishery technology, local changes, commercial fishery, cultural transformation

1. 머리말

역사 이래 인간사회는 녹색혁명, 산업혁명 등의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발전해 왔고 이 변화는 현대도 진행 중이다. 이와같은 변화의 근간에서는 새로운 도구나 기술에 의한 경제적 변화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의 변화가 뒤따른다.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유럽사회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은 전통사회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끌어내며 근대의 개념을 등장시키고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때문에 근대화란 유럽사회에서는 전근대적인 서구사회가 근대적 사회

로 변화되어가는 역사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후발주자인 비서구권에서는 유럽사회의 모방이라는 양식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과정의 특성에 의해 근대화란 용어는 서구화, 공업화, 민주화 등 다의적 개념 속에 말려 들어가 현대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 변화를 포괄하는 사회과학의 개념이 된다.

이러한 근대화의 포괄성은 지역·분야에서 따라 다른 근대화의 논의를 유발하게 되는데, 먼저 Levy (1966)는 근대사회란 덜 근대화된 사회와 비교를 통해 구분되고 근대화의 정도는 전체인구가 특정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조기준(1973)에 의하면 한국과 같은 비서구 사회에서의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연구임.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이메일)

***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Ph, Doctor,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이메일)

근대화란 이질적인 서구 문화의 수입과 모방을 통한 유럽화를 의미한다. 또한 권희영(1998년)에 따르면 근대화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경제적 영역에서의 근대화란 자본주의적 관계의 출현을 의미하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근대 서양 문화의 수용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러한 요소들의 수용과 그에 따른 태도변화에 대한 체계적 언급은 어려움을 지적한다. 또 정진오(1983년)에 의하면 근대화를 서구 사회가 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적 문화이식과 그에 따른 변동의 토착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볼 때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서구 문화와의 접촉을 통한 이식과 토착화에 의한 동질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때문에 본 논문은 지역의 원질적 특성이 남겨진 개항기 이전부터 해방까지의 시기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여 근대화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인의 유입을 기점으로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로 양분하고, 근대사회는 다시 새로운 기술과 제도가 도입되는 근대화 이식기와 이식된 제도, 기술 등이 지역의 원질 문화와 결합해 토착화되어 가는 근대화 토착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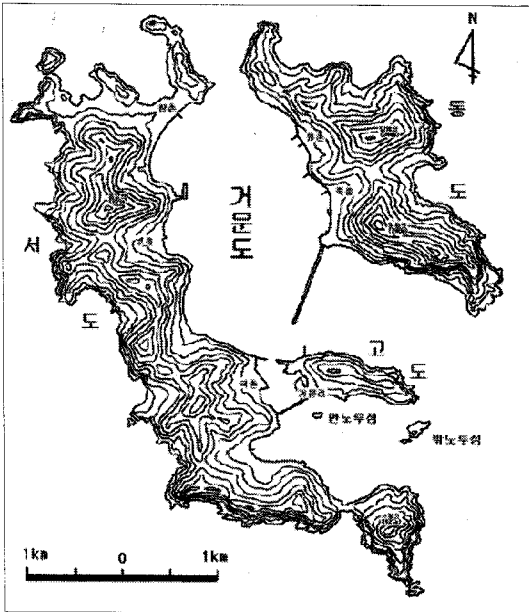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해보면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다루어진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왕조 체제가 붕괴되면서 민주주의가 도입되는 과정과 1970년대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구범모, 1973; 이윤근, 1974)가 주를 이루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의 서구적 주거 공간이나 가치 체계의 이식과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윤덕홍, 1991; 이승용, 1993; 강정립, 2001; 9, 강혜영, 2002; 이종태, 2001; 이현희, 1993; 이형표, 1997; 정영삼, 2003)가 주를 이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양적 지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자본제화 과정에 대한 연구(박강수, 1977; 강중우, 1996; 권태익, 1989; 김두원, 1995; 김성기, 1970; 김용섭, 1992; 박병용, 1981; 신용수, 1980; 신효경, 2002; 안병직 외 공편저, 1993; 이계열, 1997; 정희태, 1981)와 객주와 포구를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상업 유통 분야의 연구(고동환, 1985; 고동환, 1992; 고동환, 1993 a; 고동환, 1993 b; 김호중, 1986; 이

영학, 2001)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면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총량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거시적 연구 외에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시적인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개항기를 전후 한 시기의 지역의 근대화 과정을 다룬 연구 성과물이 많은데, 개항장과 조계가 설치된 항만지역의 도시성장 과정이나 서울의 근대화 과정 등 중심지역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연구(김종원, 1975; 옥한석, 1982; 윤정숙, 1985; 최영준, 1974; 김재광·이승익, 1991; 형기주, 1997)가 있다. 또 하천 유역의 개간 과정에서 발생한 취락의 변화(김경수, 2001; 남궁봉, 1983a; 남궁봉, 1983b; 남궁봉, 1990; 남궁봉, 1993)나 하항 교통이 쇠퇴하고 근대적 교통 수단이 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지역 변화(나도승, 1968; 나도승, 1979; 나도승, 1981; 나도승, 1984; 김선문, 1986) 등 주변지역의 변화를 다룬 연구도 있다. 다음으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 발생한 지역 변화(김덕현, 1983; 김덕현, 1991; 박성중, 1982; 양보경, 1980; 이문종, 1983; 이문종, 1984; 장보웅, 1983; 홍현옥·최기화, 1985; 최영준·손종균, 1990)와 1990년대 이후의 상업적 농업의 발달에 따른 농업의 근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변화를 다룬 연구(나용진, 1991; 송양호, 1990; 우창식, 1990)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의 검토 결과 몇가지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 변화를 주로 다루었다는 점, 둘째, 미시적인 지역 특성변화를 다룬 연구라 할지라도 계량적이며 총량적 자료와 경관 변화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결과론적 분석이 주를 이루어 변화의 과정과 그에 따른 지역 구성 요소들의 변화 과정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 이식과 토착화 과정이라는 근대화의 특성을 고려해 개항기 당시 주변지역 이던 거문도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한지역의 원질적 특성이 유입된 요소에 의한 토착화 과정을 고찰 하였다.



자료: 1997년 1 : 5,000 지형도

그림 1. 거문도의 지형도

본 논문의 연구지역인 거문도는 행정구역상 여수시 삼산면에 속하며, 거문리가 속한 고도와 덕촌리와 서도리, 변촌리가 속한 서도, 유촌리와 죽촌리가 속한 동도의 3개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 이 중 거문리는 무인도였던 고도에 일본인의 유입으로 형성된 촌락이다. 본 논문의 자료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동안의 거문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거문도 어업조합 자료와 제적부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2003년에 걸쳐 일어난 심층면담조사와 관찰을 통해 보완하였다.

2. 전통시대 거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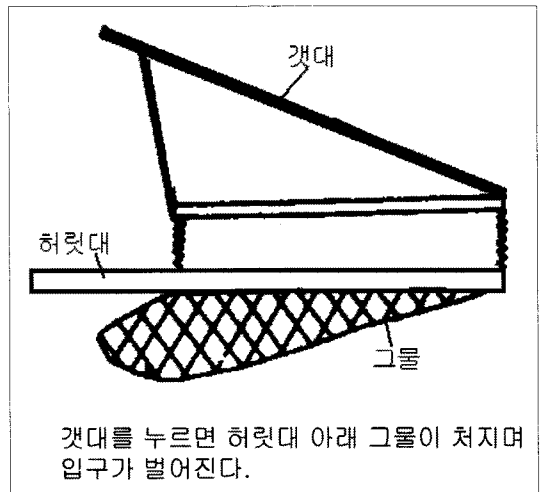
1) 반농반어 시기의 어업

전통시대 거문도는 반농반어(半農半漁) 또는 주농부어(主農附漁)의 형태이다. 거문도의 농업은 지형적으로 산지가 많고 평지가 좁으며, 하천 발달의 미약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구릉지를 개간하여 조성한 농경지에 발작물 위주의 농경을 영위한다. 주요 농작물은 밀·보리 등의 맥류와 두류이며 거문도 전체에 서도의 장춘에 유일하게 계곡주변에

협소한 계단식 논이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농업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아 만성적 식량 부족지역으로 부족한 식량 자원은 어로활동을 통해 보충한다.

거문도의 어업은 서도, 동도, 고도의 3개 섬으로 둘러싸인 내해에서 이루어지는 망어업과 울릉도에서 이루어진 원행어업이 있다.

거문도 내해에서 이루어지는 자급적 망어업은 원시적인 채그물과 들그물을 이용해 자연조건과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행해지는데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거나 찬거리를 제공한다. 이진영(1992년)에 따르면 조으내기, 두배미, 망치치기의 세가지 어법이 있는데, 조으내기는 거문도 전지역에서 이루어진 어업으로 그물을 아침나절에 갯가의 웅치에 담가 두었다가 저녁 무렵에 육지에서 끌어당겨 어획물을 수확한다. 저녁 무렵 그물을 끌 때 일손을 거들면 적당량의 균등분배가 이루어진다.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두배미는 서도와 고도사이의 바다에 그물을 작은 배에 달아 해저에 고정시켜 간만 시 해류를 따라 고기가 이동할 때 자연스레 들어가도록 한다. 망치치기는 새끼를 낳기 위해 더운 바위에 배를 비벼야 하는 습성으로 매년 5월말 동도 죽촌 앞바다로 망치가 모여드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어업이다. 망치가 있는 쪽으로 무래꾼이 잠수해 들어가서 그물을 치고 나오면 물에서 돌을 던져 고기를 놀라게 해서 그물 쪽으로 몰아 잡는다.



자료: 이진영, 1992, 거문도의 근대 어업, 256

그림 2. 망치잡이 그물

거문도의 근대적 어업 기술 도입에 따른 지역 변화

분배는 무래꾼은 2짓, 돌을 던지거나 그물을 당긴 사람은 1짓으로 이루어진다.

챗배는 멸치를 낚 채로 떠서 조업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거문도 내에서는 자챗배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분기초망(焚寄抄網)이라고도 한다. 거문도 내해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조류를 따라 멸치떼가 유입되어 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멸치어업이 이루어지는데, 6월부터 10월까지가 성어기이다.

챗배 조업 어구는 대략 10 명가량 승선이 가능한 목조 한선(韓船)과 그물, 집어(集魚)를 위한 등채를 이용하며, 멸치 조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군을 확인하고, 등채에 불을 붙여 집어를 한 후 멸치를 육지쪽 갯바탕으로 유도한다. 멸치를 갯바탕으로 유도하고 나면 빠르게 노를 저어 멸치와 배의 위치를 전환해 육지와 배 사이에 멸치를 위치시킨 후, 수면에 떠오른 멸치를 그물로 떠올린다¹⁾. 이와같은 조업과정에서 승선선원 중 선장과 기관장은 배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어획에는 그물<그림 2>을 잡고 떠올리는 갯대사공과 등채를 잡는 불사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불사공은 멸치 어군의 확인, 집어(集魚), 유인뿐 아니라 멸치를 뜰 때 그물에 밀어넣은 등채를 끄는 것으로 멸치 어획량을 조절하는 등 모든 조업을 책임지는 어로장 역할을 담당한다²⁾.

어획된 멸치는 즉시 멸치젓갈로 제조되어 보관하다가 한꺼번에 판매한 후 깃가림제³⁾ 원칙으로 분배된다(그림 3). 멸치젓갈의 판매가 일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챗배의 선원 고용이 어기단위로 이루어져, 조업이 끝난 후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챗배는 일제강점기까지도 고용 선원의 구성이 혈연을 중심으로 나타난다⁴⁾. 개항기 당시 챗배는 거문도의 각 마을별로 대략 2~4척 정도이며, 한척

당 고용 선원수가 10명 내외였다. 당시 촌락별 인구수⁵⁾를 고려한다면 노동공급에 비해 노동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혈연 중심의 폐쇄적인 노동 조직이 형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챗배 조업은 장촌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뱃노래도 장촌에서 원형이 발굴된다.

울릉도로의 원행은 매년 5월에 출발해 10월경 돌아오는 정규적인 계절이동⁶⁾으로 십수 명에서 20 여명까지 각 촌락별로 조직된다. 당시 거문도의 주요 어업활동은 『거문진지(巨文鎭誌)』의 기록을 통해 볼 때 해조류, 특히 미역의 채집인데 당시 검찰일기(檢察日記)에서 거문도민이 조선과 미역 채취를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울릉도는 도서지역이지만 어업 기반이 약하고 목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울릉도로의 원행은 20세기 초엽부터 중단된다⁷⁾.

2) 전통시대의 수산업

개항기 당시 거문도의 주요 수산물은 멸치·잡어 등의 어류와 소라 전복 등의 패류, 미역, 몰 등의 해조류이다. 가장 가까운 육지인 고흥과도 82km 떨어진 거문도의 위치 특성과 부패성과 변질성을 지니고 있는 수산물의 특성은 거문도 수산물 상품화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거문도의 주요수산가공품은 소건품인 미역과 건멸⁸⁾, 염장품인 멸치젓갈로 객주와 고흥장을 통해 거래된다.

멸치젓갈은 주로 객주와의 거래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선주와 객주간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객주는 생산품의 매매자로의 역할 뿐 아니라, 멸치젓을 담는데 필요한 소금과 웅기의 거래나 흥어기에 자본의 대여 등 생산 전반에 걸쳐 관여함으로써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거문도의 멸치젓은 영산포, 마산 등지로 판매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거래지는 전국적인 멸치젓 거래 중심지인 마산으로 한말부터 거문도와 거래해온 상인과는 현재도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고흥장에서는 객주와의 거래후 남겨진 멸치젓갈, 소건품(素乾品)이 주요 거래된다. 고흥장에서의 거래는 농사와 어업 활동이 끝난 추수 이후에 이루어지며, 촌락별로 몇 가구가 함께 배를 빌려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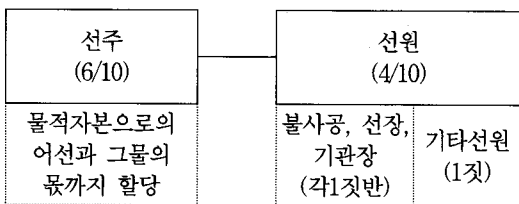


그림 3. 챗배의 분배형태

을 싣고 육지로 나가 개별가정에 필요한 곡식이나 초가지를 이을 벋짚 등으로 바꾸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흥장에서 판매된 거문도의 수산물공품은 고흥 주변의 도매상이나 보부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됨으로써 거문도의 개별 어가 → 고흥의 보부상·도매상 → 소비자로 이루어진다.

전통시대 거문도의 수산물 판매는 거문도내의 각 촌락내 망조와 객주간 또는 고흥장에서 개별 어가별로 이루어져, 거문도내의 각 촌락별로 독립적인 생산체계를 구성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

3. 근대화 이식기 거문도

1) 상업적 어업의 도입

거문도는 개항기 이전부터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서구 열강의 세력 각축장으로 주목받게 된다. 거문도가 이와같이 주목받게 된 것은 첫째, 중국·일본·한반도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앙이라는 위치적 특성으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 군사적 요충지가 된다. 둘째, 서도·동도·고도의 3개 섬으로 둘러싸인 내해가 천연의 양항 역할을 함으로써 대형 선박의 정박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본은 개항 이전부터 이루어진 조사⁹⁾를 통해 고등어, 멸치, 오징어 등의 다양한 고급 어종과 풍부한 어획량을 지닌 어장조건과 부산과 제주도라는 두 주요 어장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에 주목하여 어업 진출을 시도한다.

이와같은 일본의 어업 진출은 거문도 지역 어업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일본 어민의 거문도 정착¹⁰⁾에 따라 새로운 어업인 일본조(一本釣)¹¹⁾와 주낙(延繩)¹²⁾이 등장이고, 둘째로는 거문도 근해 어장에서 조업하는 고등어 건착선이 출현하여 거문도를 어업 근거지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1906년부터 거문도로 유입된 초기 이주자들은 영세 어민으로 일본조(一本釣)와 주낙(延繩) 어업을 주로 한다. 이 어업은 낚시와 소형 어선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어구를 이용해 수심이 깊은 바다에

서 도미, 삼치, 방어, 갈치, 고등어 등 일본인이 선호하는 어종을 어획한다. 어획물은 거문도 내에 사무실을 개소한 하야시가네, 서태양(西太陽), 일본수산등 일본 수산회사를 통해 선어나 활어상태로 판매된다. 이러한 일본조(一本釣)와 주낙(延繩)은 거문도 내의 한국인 어민에게도 빠르게 확산되는데, 이는 첫째로 전통어업인 갯개¹³⁾와 유사성이 크고 노동의 분배 형태가 선주와 선원이 5:5의 1:1 분배로 이루어져 한국어민의 수용이 용이하다는 점과 다음으로는 어구의 구입이 거문도 내 선구장에서 가능하며 어획물이 거문도 내에서 선어나 활어 상태로 판매되어 상품성이 확대된다는 점 등의 경제적 측면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어업 변화는 영세적이지만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한 어업의 성장을 의미하고,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력선의 등장과 어선규모 증가에 따른 어장 확대로 상업적 어업으로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진다.

고등어 건착선¹⁴⁾은 1910년대 중반이후 거문도에 출현한다. 이는 거문도 근해가 남해안 최대의 고등어 어장이며, 대형선박의 정박과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등 어업근거지로 성장한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어 건착선은 대규모의 선단¹⁵⁾으로 구성되어 70~80여명의 선원이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 조업장소는 원해(遠海)이며 1~2주 가량 같은 장소에서 조업을 계속한다. 이 기간동안 어획된 고등어는 운반선을 통해 즉각적으로 거문도로 집산되어 일본수산회사를 통해 일본, 대만, 대련 등지로 판매된다. 조업 방법을 통해 볼 때 이는 새로운 대자본의 원양 어업 출현을 의미한다. 임금의 형태는 월고정급제로 지불되는데, 기존 어업에 비해 고용 선원수가 증가하고, 자본 투하액이 증가함으로써 짓가림제와 같은 분배형태로는 수익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특이한 점은 기존의 승선 조건보다 고등어 건착선의 승선 조건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문도민들은 고등어 건착선을 쌍놈배라고 부르고 경시하여 승선을 꺼렸다드는 것이다¹⁶⁾. 이러한 현상은 낯선 어업 형태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으며 또 당시 출현한 어선이 일본이나 부산에 적을 둔 일본수산회사 소속의 선박임을 고려한다면 일본 주도의 어업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으로

거문도의 근대적 어업 기술 도입에 따른 지역 변화

도 볼 수 있다.

근대화 이식기에 출현한 고등어 건착선은 거문도지역 내 어업 형태의 변화나 소유 형태의 변화를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어업 기반 시설과 선박 집산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먼저, 고등어 성어기인 6~8월경 각지에서 몰려드는 고등어 건착선의 어업 근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어선과 수산회사의 대형 운반선 정박을 위한 어항, 조선소, 제빙소, 어시장 등을 갖추게 된다. 이 후 1923년 거문항이 지정항으로 승격함으로써 어업 근거지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또한 고등어 건착선이 출현하며 거문도내 소형 어선은 배가 그물을 펼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목선, 전마선의 역할을 수행하고(이진영, 1992, 286), 유입된 선원을 위한 각종 상업과 서비스업이 등장하고 발달한다.

근대화 이식기 거문도에 도입된 두가지 새로운 어업 형태는 지역내에서 수용되는 양상에 차이를 나타낸다. 큰 주낙이나 일본조는 지역내에서 영세 어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지만, 고등어 건착선은 직접적인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도는 지역내의 전통 어업과의 유사성이나 공존성의 여부에 따라 수용 양상의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2) 근대화 이식기의 수산업

1920년대 당시 거문도는 일본조(一本釣)와 주낙(延繩) 어업의 등장으로 선어나 활어상태로 판매되는 어획물의 증가와 고등어 건착선의 출현으로 어장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나고, 이는 새로운 어종의 상품화, 어획량의 증대 등을 유발한다. 특히 고등어 성어기에는 하루 정박 어선이 100여 척이상으로 거문리에서 서도의 덕촌까지 배로 다리를 만들어 걸어서 건널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같이 어업 근거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늘어나는 어획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어획물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의 요구는 거문도 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일본인 자본의 침투로 어획고는 크게 증가하나, 유통 조직

은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생산과 유통의 모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일본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요 항구에 어시장의 개설 등으로 유통 구조의 개선을 도모한다(이계열, 1997, 81). 거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산한 일본 수산회사 사무소가 근대적인 유통구조인 어시장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어법의 지역내 출현은 수산물 유통 과정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수산물은 선어나 활어 상태로 거문도 내의 일본 수산회사를 통해 일본, 대련, 대만 등지로 수출된다.

특히 거문도내에 개설된 어시장이 점차 거문도 뿐 아니라 거문도로 집산하는 외부 어선의 어획물 집산처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승수효과가 발생해 거문도의 어업 근거지로서 기능이 강화된다. 거문도 어시장이 거문도 근해 어장의 중심 시장으로 기능하게 됨으로써 제빙소 등의 어업 기반 시설과 일본 수산회사의 운반선 집산이 증가한다. 이와같은 변화는 거문도를 단순한 어획물 집산처가 아닌 어획물의 처리, 매매와 판매까지의 일련의 활동이 연계되는 근대적 유통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근대화 이식기 새로운 어업 기술의 도입은 지역내 어시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켜, 주변지역이던 거문도를 주변지역을 배후지로 한 중심기능을 부여하며, 지역내에서는 독립적인 촌락 체제로 유지되던 체계를 어시장을 중심으로 외부와 연계된 유통체계의 구축을 통해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된 지역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4. 근대화 토착기 거문도

1) 상업적 어업의 발달

근대화 토착기에 거문도 지역내 어업은 어법이 다양화되고, 어선수의 증가와 대형화, 동력화 등 어로장비의 근대화의 특징을 지닌다. 특히 거문도 지역 내 전통적인 멸치어업에도 새로운 어법의 도입과 어로장비의 근대화가 나타남으로써 멸치 조업 변화가 나타난다.

어로 장비의 변화는 어선수의 변화라는 측면에

표 1. 1940년대 삼산면 어업 현황

단위: 척

관(%)

엔(%)

	어선수			어획량			어획고		
	일본인	한국인	소계	일본인	한국인	소계	일본인	한국인	소계
발동기 수조망	8 (1.5)	1 (0.2)	9 (1.7)	4,600,000 (70.8)	550,000 (8.5)	5,150,000 (79.3)	980,000 (49.6)	110,000 (5.6)	1,090,000 (55.2)
온건착망	0 (0.0)	9 (1.7)	9 (1.7)	0 (0.0)	229,733 (3.5)	229,733 (3.5)	0 (0.0)	171,000 (8.7)	171,000 (8.7)
조정망	4 (0.8)	3 (0.6)	7 (1.3)	14,000 (0.2)	8,000 (0.1)	22,000 (0.3)	70,000 (3.5)	40,000 (2.0)	110,000 (5.6)
각망 절망류	5 (0.9)	5 (0.9)	10 (1.9)	14,000 (0.2)	550,000 (8.5)	564,000 (8.7)	98,000 (5.0)	25,000 (1.3)	123,000 (6.2)
안강망	0 (0.0)	94 (17.6)	94 (17.6)	0 (0.0)	398,000 (6.1)	398,000 (6.1)	0 (0.0)	220,000 (11.1)	220,000 (11.1)
일본조	24 (4.5)	380 (71.3)	404 (75.8)	36,000 (0.6)	95,000 (1.5)	131,000 (2.0)	72,000 (3.6)	190,000 (9.6)	262,000 (13.3)
합계	41 (7.7)	492 (92.30)	533* (100)	4,664,000 (71.8)	1,830,733 (28.2)	6,494,733 (100)	1,220,000 (61.7)	756,000 (38.3)	1,976,000 (100)

자료: 삼산면지

* 근대화시기를 거치며 어업 기술이나 방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채조 어업은 제외하고 어선어업만을 대상으로 함

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근대화 이식기에 30여 척이던 어선¹⁷⁾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40년대의 삼산면 어업 자료에 따르면 발동기 수조망(發動機手繰網), 온건착망(溫巾着網), 조정망(調廷網), 각망절망류(角網折網類), 안강망(安康網), 일본조(一本釣) 등의 다양한 어업에 종사하는 533척의 어선이 삼산면 내에 등록되어 있다¹⁸⁾(표 1).

<표 1>의 어선수 현황을 통해 보면 전체 어선 중 75.8%가 일본조 조업어선으로 이 시기 어선수 증가는 일본조 조업 어선 증가가 주도한다. 이는 소규모 어선과 낚시 도구만으로 조업이 가능하다는 일본조 조업의 특징이 이점으로 작용하고, 다른 조업방법과 비교해 보면 어획량은 전체의 2.0%에 불과하지만 어획고는 13.3%로 높게 나타나 소자본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국인 영세 어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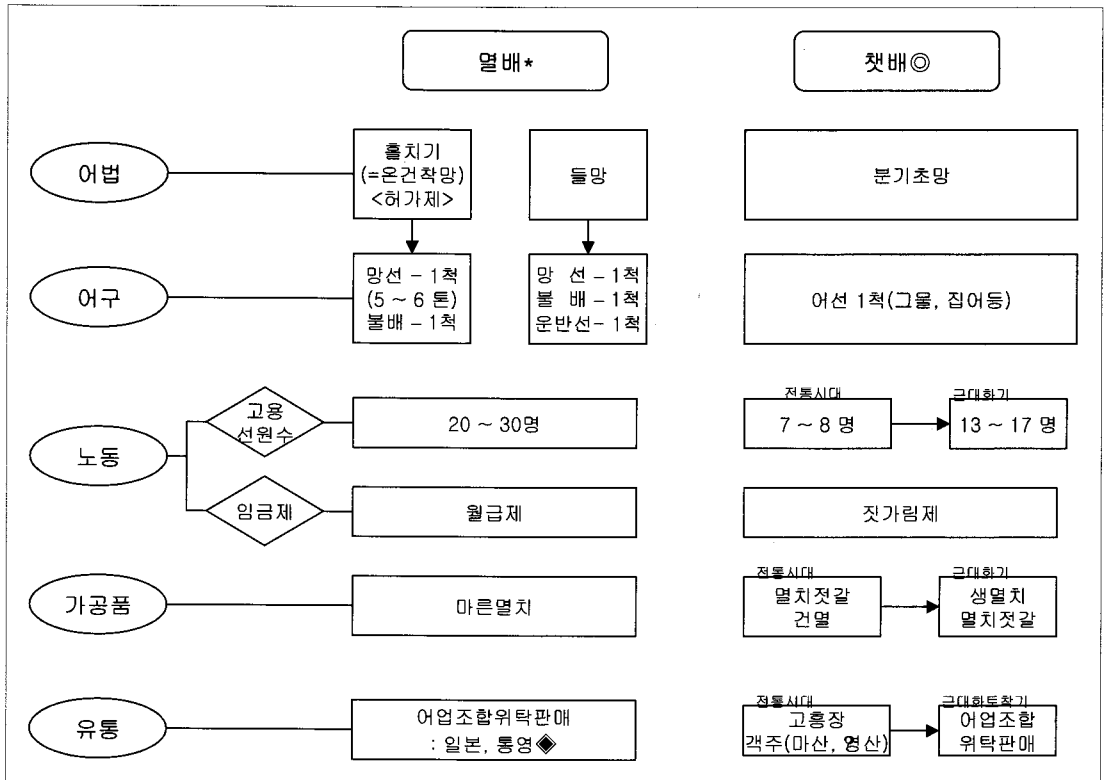
<표 1>을 민족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어선 중 92.3%가 한국인 소유로 나타나지만 어획량은 28.2%, 어획고는 38.3%로, 일본인의 척당 평균어획고는 29,756엔이고, 한국인의 척당 평균 어획고는 1,537엔으로 약 19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먼저 어선척수로는 1.7%에 불과하지만 어

획량은 79.3%, 어획고는 55.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발동기 수조망이 일본인에 집중되어 있고, 어선척수로는 75.8%이지만 어획고로는 13.3%에 불과한 일본조가 한국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어법은 척당 평균 어획고가 각 121,111엔과 649엔으로 180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대표적인 대자본계 어업과 영세어업으로 비교되어 대자본계 어업의 일본인 집중 현상을 드러낸다.

다음으로는 동일 어법상에서의 민족당 어획고 차이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조(一本釣)와 같이 동일한 조업에서도 척당 평균 어획고는 일인 어선이 3,000엔, 한인 어선이 500엔으로 6배 가량의 수익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인 어선은 동력선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어선이 주를 이루나 한국인 어선은 소규모의 무동력선이 주를 이룸으로써 먼바다에서 조업이 가능한 일본인 선주들이 고수익의 어종을 조업해 수익의 차이를 낸다. 결국 거문도 지역내에서는 일본어민은 고수익의 대자본계 어업에 집중해 있으며 동일한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근대화된 어업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어민은 영세 어민으로 민족간의 소

거문도의 근대적 어업 기술 도입에 따른 지역 변화



* 거문도에서는 어법에 관계없이 마른멸치를 만드는 멸치를 잡는 어선을 일컫는 명칭

◎ 거문도에서는 어법에 관계없이 멸치젓갈을 담는 멸치를 잡는 어선을 일컫는 명칭

◆ 일본으로 수출하는 마른멸치의 전국 집산지

자료: 현지 조사에 의거해 작성

그림 4. 근대화 토착기 거문도의 멸치어업

특 격차가 심한 이중적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본 주도의 어업 환경속에서도 한국인이 중심이 된 온건착망, 안강망 등 일부 어법이 지역 전체 어획고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모두 멸치 어업에 이용되는 어법으로 특히, 총 94척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하는 안강망의 확산이 두드러지는데, 이 어법은 거문도 뿐 아니라 한국 어장 전체에서 빠르게 확산된 일본식 어구이다. 안강망의 빠른 확산은 어구로서 구조가 단순하고 취급이 간편하면서도 소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거문도내에서는 전통 어법인 두배미와 유사점이 있어 더욱 확산이 더 용이하다.

이와같이 새로운 어법이 등장하며 멸치의 어획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늘어난 어획량의 처리가 가

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전통적인 가공법인 멸치젓갈 외에도 이시기에는 자건품(煮乾品)인 마른멸치의 가공법이 거문도 내에 소개되어, 멸치의 상품가치가 높아진다.

이 시기 거문도 내에서는 멸치어업을 열배와 챗배로 구분한다.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분류는 어법의 차이가 아닌 조업한 멸치를 처리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한 분류로서, 마른멸치로 가공하는 멸치를 조업하는 배를 열배, 멸치젓갈을 담는 멸치를 조업하는 배를 챗배라고 한다(그림 4). 열배는 어법으로는 온건착망, 온작기망 등으로 거문도 내에서는 들망과 홀치기로 구분된다(그림 5). 먼저 홀치기¹⁹⁾는 대규모의 허가제 어업(이진영, 1992, 278 ~ 279)으로 거문도 내에서는 7명이 홀치기 허가자가 확인되고 허가 어선수는 총 9척이다. 이 어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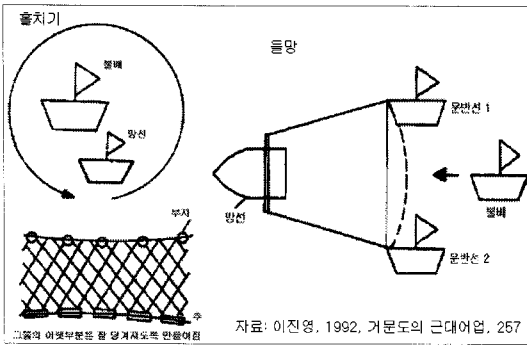


그림 5. 근대화 토착기 멸배의 어법

5~6 톤가량의 망선과 불배로 구성된 선단으로 조업하며 승선인원은 20~30명 가량의 대규모 어업이다. 이 훌치기 어업은 거문도내에서는 장촌의 이영빈에 의해 처음 이루어지고, 이후 챗배 선주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간다. 들망²⁰⁾은 망선 1척과 운반선 2척, 불배 1척의 선단으로 구성되며, 훌치기와 달리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멸배는 들망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멸배를 통해 어획된 멸치는 마른멸치로 가공되어 어업조

합을 통해 판매된다.

새롭게 등장한 멸배와 달리 챗배는 전승되어 오던 어법이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멸치젓갈의 수요처와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수요 증가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선진 어법이나 어구의 수용, 어선의 규모 확대, 고용 선원수가 증가 등으로 어선당 어획고를 증대시킨다.

이후 1931년 어업조합의 위탁판매가 실시되면서 거문도 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전량 거문도 어업조합을 통해서만 판매되게 됨으로써 기존의 선주와 객주간의 직접 거래의 형태가 변화된다. 이 거래 형태의 변화로 인해 객주는 거문도 어업조합을 통해 생멸치를 구입해 마산이나 영산 등지의 객주의 상업 근거지로 가공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멸치를 선어 상태에서 운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른멸치 만들기 등의 새로운 고임금의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기존의 멸치젓갈 가공에 활용되던 노동력에 대한 수급상의 어려움이라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거문도내 어법 다양화, 어로 장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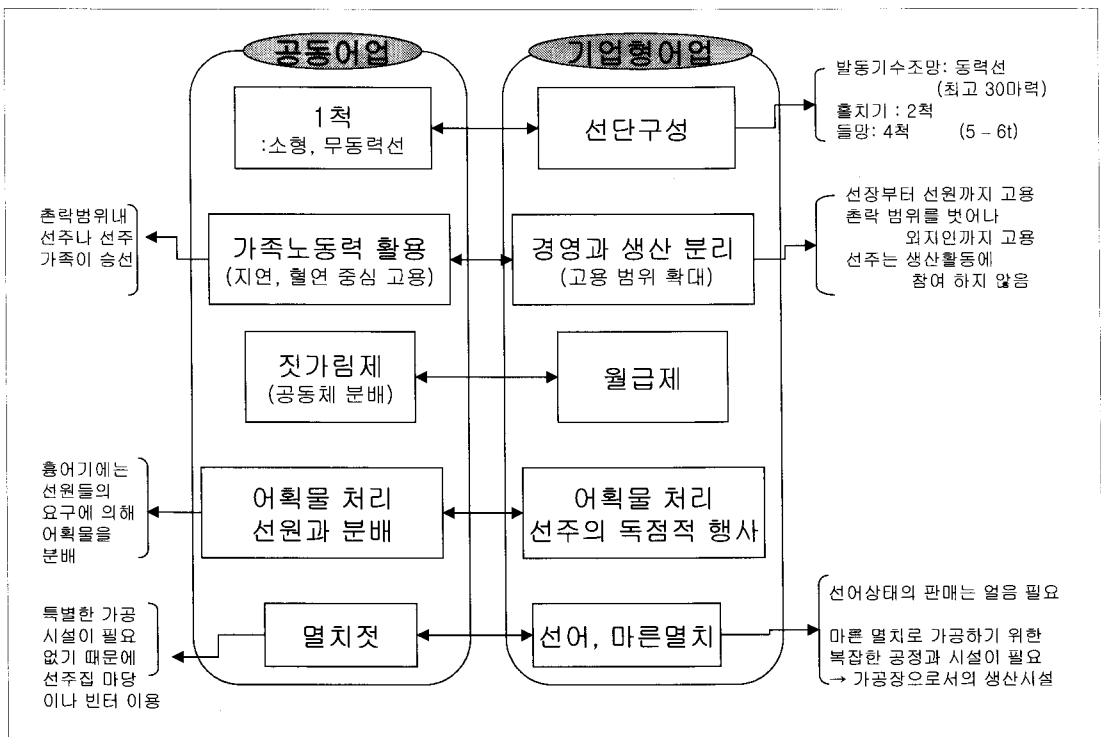


그림 6. 거문도 어업 경영 형태의 변화

거문도의 근대적 어업 기술 도입에 따른 지역 변화

근대화는 이주 일본어민 뿐 아니라 한국어민에게로도 확산되어 어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상품 생산 체계로의 어업으로 변화시킨다. 특히 발동기수 조망, 온건착망과 같은 대자본어업이 출현함으로써 어업 경영자가 지역내에 등장하게 된다. 이들의 등장은 점차 소수에 어선 어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선주와 선원의 관계가 어업 경영자와 노동자로 분리됨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거문도 지역의 어업 경영 형태 변화는 <그림 6>과 같다. 이는 전통시대부터 지속되어온 공동 어업의 형태가 기업적인 어업의 형태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근대화 토착기 기업형 어업의 출현은 대규모 어업의 성장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 수요를 증가시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외지인의 유입을 유발한다. 외지 노동력의 고용은 일본인 선주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점차 멀치어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주에게까지 확산된다. 고용은 어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임금 구조는 월급제이다. 근대화 이식기에 고등어 건착선에 나타난 월급제의 지역 내 출현은 투하되는 자본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어업 소득에서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타공정에 대한 선주의 부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가공과정이나 판매과정 등의 제 활동에서 선주의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점차 선주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어 경영과 생산의 분리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상과 같은 기업형 어업의 등장은 영세어업자와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멀치어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어업과 대규모 어선, 동력선은 일본어민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한국어민과 일본어민의 소득차이는 더욱 공고해 지며, 이러한 소득

의 차이는 다시 새로운 어업 장비에 대한 투자의 차이를 유발함으로써 민족간의 이종적인 소득 구조는 더욱 심화된다.

2) 근대화 토착기 수산업

근대화 토착기 거문도 지역내의 수산업은 수산가공품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수산가공업의 발달, 수산물 유통 구조의 변화로 요약된다.

수산 가공업의 발달은 어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산물의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선어나 활어상태로 판매될 수 있는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됨에 따라 상품화되기 어려운 어종이나 부산물 등의 잉여산물 처리량도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이와같은 잉여산물을 가공하여 상품화를 하게 되면서, 전통시대보다 좀더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수산가공품이 등장하게 된다(그림 7).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수산가공품은 자건법으로 가공된 마른멸치와 어묵, 사뽀라 부시²¹⁾와 같은 조미가공품이다.

조미가공품의 제조는 주로 일본인 업주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노동력은 현지 한국인 여성으로 충당된다. 이때 임금은 일처리량을 기준으로 능력제로 지급한다.

전통시대부터 주요 어종이던 멸치는 자건법(煮乾法)이 도입되며 마른멸치로 가공되어 판매 시장을 확대한다. 마른멸치는 생멸치를 말린 건멸과 달리, 어획한 멸치를 통에 채우기 → 삶기 → 건져서 물빼기(그늘에 채워두기) → 햇볕에 말리기 → 거두기의 가공과정을 통해 생산한다. 가공과정은 간단하지만 크기가 작고 부패가 빠르며 잘 부스러지는 멸치의 특성 때문에 전 공정은 신속하고 정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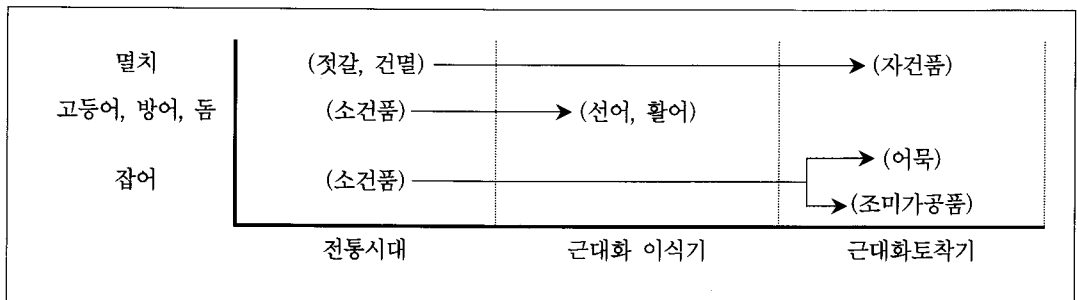


그림 7. 시기별 가공품 변화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이 마른 멸치를 만드는 가공 과정에는 최소 20명에서 30명 가량의 여성노동력이 동원되어 각 공정마다 분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와같은 가공과정의 세분화된 작업은 숙련 노동력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때문에 가공과정에서 동원되는 노동력은 작업 공정별, 숙련도별로 임금이 차등 지불된다.

마른멸치의 가공은 각 촌락별이 아니라 선주별로 소유한 개별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작업장은 해변의 일조량이 풍부하고 넓은 터에 설치된다.

장기간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가공된 마른멸치는 어기가 끝난 후 세멸, 중멸, 대멸로 분류하여 포장 출하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인다. 이러한 가공, 분류, 포장 등 세분화된 마른멸치의 상품화 과정은 어기와 무관하게 임노동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지역 내 고용의 안정을 유발한다.

새롭게 등장한 수산가공품의 생산은 거문도 지역내에서 첫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업공간과 주거공간의 분리현상을 유발하고 둘째, 유희 노동력으로 인식되던 여성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임금제 고용을 확산시킨다.

수산 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물의 유통 구조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1931년부터 실시된 거문도 어업조합에서의 위탁 판매이다. 어업 조합의 위탁 판매란 조합원의 어획물을 공판장에서 경매에 의해서 처분하는 공판제도로서 유통 과정에서 어업조합이 중계자가 되어 생산자인 어민과 수산 회사나 객주와 같은 매매자를 연결한다. 일찍이 근대화 이식기부터 이미 거문도 내에는 어시장을 형성하여 거문도 주변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 일본의 독점적인 매매권을 확보하고자 한다(이진영, 1992, 279-280). 이후 실시된 거문도어업조합의 위탁판매는 경매에 입회하는 중계인의 자격을 조합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대부분이 일본인이 정해짐으로써 수산물 유통 구조가 객주를 중심으로 한 토착자본에서 일본자본으로 전환된다(이계열, 1997, 86).

일본의 한국내 경제적 지배력의 확대를 위해 시행된 제도인 어업조합의 위탁판매는 주변지역인 거문도에서는 지역내에서 긍정적 작용을 한 점도 있다. 첫째, 경매를 통한 공판제도가기 때문에 이전까지 도매상인 객주나 일본 수산회사에 의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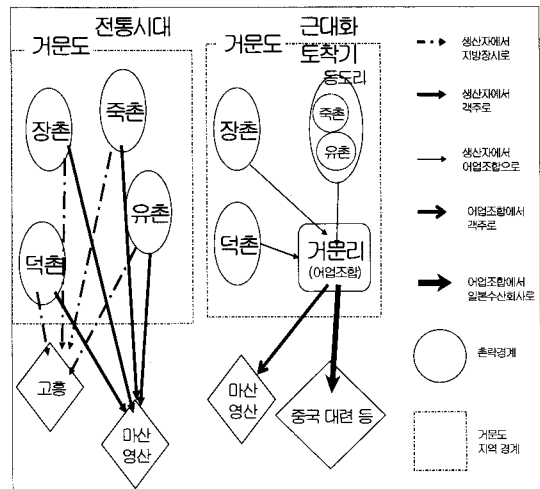


그림 8. 거문도의 유통체계 변화

방적으로 결정되던 판매가격에 변화를 유발하여 영세 어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는 수산물의 매매가 거문도의 지역단위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이 거문도 지역내에서 이루어져 어업근거지로서의 거문도 지역 위계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즉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거문도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업조합의 위탁판매는 지역내 어업자들을 어업조합이라는 제도로 결합시킴으로써 지역내 결합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새로운 시장의 확대를 유발한다(그림 8). 또한, 어시장을 통해 수산물 유통 체계에 편입된 거문도 내에 어업자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행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요약 및 맺는 말

본 연구는 소규모 변경도서인 거문도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이식과정과 원질 문화와의 결합에 의한 토착화 과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항기부터 해방까지의 기간을 전통시대, 근대화 이식기, 근대화 토착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그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시대의 거문도는 반농반어의 도서 촌락으로서, 농업에 보조적으로 어업이 이루어진다. 당시 어업활동은 내해를 중심으로 한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한 자급적 망어업과 멸치어획을 위한 챗배, 그리고 정규적인 계절이동으로 미역 채집과 조선(造船)을 목적으로 한 울릉도 원행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시기의 어업 활동은 조직된 망조를 중심으로 한 공동어업으로 이 어업공동체는 어업 활동 뿐 아니라 가공, 판매의 전 과정에 관여한다.

어획물은 멸치젓갈과 소건품으로 가공되어 객주나 지방장시에 판매되었으나, 잉여산물이 농기가 끝난 한정된 시기에만 판매되며, 화폐가치 보다는 교환 가치로 인식된다는 한계성으로 상업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근대화 이식기에는 일본 어민이 지역 내에 정착하며 일본조와 주낙 등 새로운 어법이 출현하고, 외지인 소유의 고등어 건착선이 출현함으로써 거문도는 어업 근거지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어업 활동의 출현은 어업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어획물의 신속한 처리, 판매를 위한 어시장이 거문도 내에 개설된다.

어시장의 출현은 전통시대 촌락별로 독립적 연합체였던 거문도를 하나의 지역 통합체로 묶으며, 거문도를 어업 근거지로 자리매김 시켜 상업적 어업의 발달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높은 고등어건착선 승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식된 문화 요소에 대한 수용 속도와 반응의 차이가 나타난다.

근대화 토착기에는 어선수 증가, 어법의 다양화, 어선의 대형화와 동력화 등 어로장비의 근대화로 인한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일본어민에 집중되어 영세적인 한국 어민과 대자본제의 일본 어민으로 분리되는 이중적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점차 한국 어민에게도 천시하던 고등어 건착선의 기술과 제도가 멸치어업에 수용되어 멸배라고 부르는 멸치 건착선이 등장하고, 챗배의 어로장비가 근대화 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거문도 지역내에 기업형 어업이 등장하고 어업 경영가가 출현함으로써 상업적 어업이 발달하게 된다.

수산가공품은 더욱 다양화되고, 수산물 가공 공장이 등장함으로써 수산업 전반에 걸쳐 발달이 이루어진다. 특히 거문도 내에서 생산, 가공된 전 품목에 대해 어업조합의 위탁판매가 실시됨으로써 유통 체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 제도를 통해 거문도 내 모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판매는 일원화되어 지역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의 어업자 역할이 주도적으로 변화된다.

본 연구는 주변지역인 거문도에 어업 기술 및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산업 변화를 통해 미시적 지역 내 변동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새로운 제도의 이식과 수용, 변화의 토착화는 동일 지역 내에서도 요소별로 다른 속도와 양상으로 전개됨으로써 선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

- 1) 이진영의 거문도 근대 어업의 챗배 조업 방법과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조업 방법을 재구성한 것이다.
- 2) 면담자: 이기순
- 3) 짓가림제는 비율로 할당하는 것이다. 선주와 선원의 몫이 6:4로 나누어지고 나면, 선원의 몫에서 한것 반이란 1.5명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이다.
- 4) 선주와 혈연 관계가 있는 선원의 우선 승선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동도리에서는 한씨 일가가 가장 많이 했다(면담자: 김성택)
- 5) 전통시대의 거문도 인구에 대한 자료는 19세기 말의 『거문진지(巨文鎭誌)』와 1867년 거문도를 방문한 미국 Wachuset호 Shufeldt 함장의 기록을 통해서이다. 『거문진지(巨文鎭誌)』에는 거문도의 4개 마을의 총 호구수가 390호로, Shufeldt 함장은 “약 50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마을”로 기록하고 있다.
- 6) 떠나는 5월은 남해안쪽에는 파과람(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때이며, 돌아오는 10월은 북풍이 불 때이다. 당시의 풍선을 이용한 항해이므로 울릉도까지의 원행에서 바람이라는 자연 조건을 이용하였다.
- 7) 면담자의 대부분이 울릉도와외 교류는 거문도의 자랑스러운 과거의 일부로 언급하지만 모두 구전으로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거문도 지역의 현재 거주자중 유일하게 장춘의 89세, 91세의 김병순 할아버님 내외분만이 울릉도 항해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
- 8) 건멸이란 생멸치 그대로 바구니에 퍼서 밭에 넣어 말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건멸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은 매우 한정적이다. 춥고 건조한 시기, 즉 밭의 수확이 끝나고 서기가 내릴 10월 말경에만 가공이 가능하다.
- 9) 1893년 간행된 朝鮮通漁事情
- 10) 1906년 일본인 기무라츄다로(木村忠太郎)일가가 처음

- 거문리에 정착함으로써 무인도인 고도는 일본인 이주 어촌 거문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일본인의 유입·정착이 시작된다. 연이어 1908~1912년 사이에 堀喜平의 6가구가 더 이주해 왔다(곽영보, 1986, 53-54).
- 11) 一本釣는 낚시에 끝에 바늘을 달아 놓은 도구를 이용하여 술을 직접 손에 쥐고 낚는 방법이다.
 - 12) 주낙은 延繩이라고도 하는데 긴 술에 여러개의 바늘이 달려있다. 조업 방법은 주낙(延繩)을 바다에 띄워 일정한 깊이에서 뜨도록하여 줄을 바다에 풀고 반대쪽부터 다시 거두어 들이는 방법이다.
 - 13) 해안에서 이루어 지는 전통낚시법으로 낚시대 없이 면사에 감물을 들어 강도를 높인 낚시줄을 손에 잡고 행하는 어업으로 해안가의 다양한 어종을 어획한다.
 - 14) 고등어 건착선은 機船底引網이라고도 하고 또 대구리배라고도 한다.
 - 15) 그물을 싣고 다니는 배, 고기를 퍼 올리는 배, 운반하는 배 등 총 7~8척의 대구모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16) 그 이유를 고등어 건착선의 그물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에 타르를 먹여 시커먼 색깔을 띄고 있었으며, 또 배가 지나가면 기름이 떠 내려올 정도로 더러웠다고 기억하며 거문도민들은 이 배를 쌍눈배라고 부르며 경시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외지인들만이 이 배를 타고 거문도민 중에는 이배를 타지 않았다(면담자: 박종삼, 이기순, 김연철).
 - 17) 1917년 거문도 어업 조합 설립 당시의 자료를 통해 볼 때 거문도 지역내의 어선 현황은 鱈焚寄抄手網漁船 30척이다.
 - 18) 당시 거문도는 삼산면 전체에서 가장 어업이 발달한 지역이므로 삼산면에 대한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삼산면 내에 일본인 거주지였기 때문에 자료상의 일본인 어업에 대한 자료는 거문도내의 자료로 볼 수 있다.
 - 19) 멸치를 고령된 자리에 집어한 후 그물을 둘러싸고 그물 아랫부분을 훑치는데 연유한 표현으로 온건착망을 일컫는다.
 - 20) 망선과 운반선 2척이 삼각형의 구도로 자리를 잡으며 그물을 펼쳐둔다. 이렇게 망선과 운반선의 준비가 끝나면 불배가 멸치를 유도, 집어해 펼쳐둔 그물 쪽으로 이동해 그물로 몰아넣는다.
 - 21) 상품화 되지 못한 잡어로 배를 따고 칼질을 하여 넓적하게 만들어 말린 조미가공품이다.

문헌

- 고동환, 1985, 18·19세기 외방포구의 상품 유통, 한국사론, 13, 235-305.
- 고동환, 1992, 18세기 서울에서의 어물 유통 구조, 한국사론, 28, 151-208.
- 고동환, 1993, 17·18세기 서울 강경 지역의 상업 발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곽영보, 1986, 거문도 풍운사, 삼화 문화사, 광주.
- 김 유(주영하 감수), 1988, 국역 해상기문: 러시아의 첫 외교문서(1854), 세종대학교 출판부, 서울.
- 김계열, 1997, 한국수산업의 자본제화과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덕현, 1983, 씨족부락의 형성 과정과 입지 및 유교 문화 경관 - 안동지방 토족 부락을 중심으로, 지리학 논총 10, 241-251.
- 김덕현, 1989, 최신 한국 촌락의 경관 변화에 대한 이해 -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창간호, 23-38.
- 김덕현, 1991, 유교적 촌락 경관의 이해,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한국문화 역사지리학회편, 191-214.
- 김수희, 1996, 일제시대 어업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수산업사 연구, 3, 59-66.
- 김재왕·이승익, 1991, 개항을 전후한 목포의 경관 및 기능 변화, 지리학 논집 17(1), 27-49.
- 김종원, 1975, 부산의 도시 성장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고찰; 개항 - 해방까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호중, 1986, 조선 후기 어염의 유통 실태, 대구사학 31(1), 109-138.
- 나도승, 1968, 지형변화와 교통로변천에 따른 부강리 하항 취락의 성쇠 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집 5, 81-96.
- 나도승, 1979, 개항기 금강 내륙수로 하안 취락의 지리적 연구(1899~1910), 논문집 15, 79-92.
- 나도승, 1981, 금강수운 하항시장권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하항취락 성쇠를 중심으로, 논문집 17, 91-114.
- 나도승, 1984, 개항 전후기 금강 함토항 군산과 그 배후지 형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 20, 161-178.
- 나상우, 1986, 객주제도에 대한 소고 - 수산업 협동조합과 객주제도를 중심으로, 수산경영 연구 8, 38-49.
- 남궁봉, 1983, 개척촌의 문화지리학적 연구 - 전북 옥구군 미면 산북리 간석지를 중심으로,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석천 이찬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492-522.
- 남궁봉, 1983, 동진강하구 간척촌에 관한 연구 - 전북 김제군 황활면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0, 197-212.

거문도의 근대적 어업 기술 도입에 따른 지역 변화

- 남궁봉, 1990, 천방과 보창배미 개간, 문화역사지리 2, 1-17.
- 남궁봉, 1990, 하천 유역일대 간석지상의 간척취락 유형에 관한 연구 - 만경강, 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남궁봉, 1993, 만경강유역의 개척과 취락 유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5, 1-31.
- 박찬석, 1987, 근대화가 섬의 문화 생태계에 미친 영향 - 울릉도, 지리학 논구, 8, 69-87.
- 여박동, 2002, 일제의 조선 어업 지배와 이주 어촌 형성, 보고서, 서울.
- 옥한석, 1982, 마산시 경관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지리학 17(2), 15-51.
-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 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군산항을 중심으로, 지리학 20(2), 74-99.
- 이문중, 1983, 동족촌과 잡촌형태: 청양군 목면 신여리를 사례로, 논문집 21, 359-369.
- 이문중, 1984, 동족촌의 인구 이동과 촌락의 변모-청양군 목면 신여리를 사례로, 지리학 30, 77-89.
- 이진영, 1992, 거문도의 근대 어업 발달, 일제시대 한어촌의 문화 변용 I, 253-292.
- 정진오, 1983, 근대화 이론에 대한 연구, 제주대 논문집, 16(2), 87-103.
- 조기준, 1972,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총서; 1, 서울.
- 최영준, 1974, 개항을 전후한 인천의 지리적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2(1), 1-38.
- 형기주, 1997, 일제하 서울 근대화의 식민지적 성격, 응용지리 20, 1-20.
- 삼산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0, 삼산면지, 전라남도 동국여지승람, 한국학술정보 영인본(1590).
- 조선국세조사보고서, 조선총독부, (1925, 1930, 1935, 1940, 1945).

(접수: 2009.6.11, 수정: 2009.7.14, 채택: 2009.8.10)